

제 1 교시

국 어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의미
힘내! 할 수 있을 거야!	등을 토닥이며	격려 표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동의 표현

- ① 고개를 끄덕이며 ② 무섭게 인상 쓰며
③ 양손을 내저으며 ④ 차갑게 등을 돌리며

2. 다음 대화에서 직원의 말하기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손님: 두 명 자리 있나요?
직원: 죄송합니다. 30분 정도 웨이팅하셔야 해요. 오늘 메뉴가 저희 셰프님 시그니처 메뉴라서요. 괜찮으시면 왼쪽 웨이팅 룸으로 에스코트해 드릴까요?

- ①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다.
②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을 사용했다.
③ 기분을 상하게 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다.
④ 상황에 맞지 않는 관용 표현을 사용했다.

3.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ㄸ, ㅌ, ㄴ, ㄹ, ㄺ, ㄻ, ㄽ, ㅍ, ㅊ,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ㄹ,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굳다 ② 낙지 ③ 답사 ④ 볶음

4. 다음을 참고하여 예문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상대 높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표현하는 방식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상대 높임법은 대체로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로 높임을 실현한다. 종결 어미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격식체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계체 / 해라체
비격식체	해요체 / 해체

예문

- ①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셨어요.
② 어머니께서도 공원에 가신대.
③ 선생님께 먼저 과일을 드리시게.
④ 아버지를 모시고 큰택에 다녀왔습니다.

상대 높임

-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요체

5. ㉠~㉣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친 것은?

㉠ 며칠 뒤에 공장 문이 ㉡ 단힐 것이라는 소문이 ㉢ 금세 ㉣ 붙어져 나왔다.

- ① ㉠: 몇일 ② ㉡: 닛힐 ③ ㉢: 금새 ④ ㉣: 붙겨져

[6~7]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대 글 개요

I. 서두: ㉠ 계절을 소재로 글을 시작함.

II. 본문

1. 축제 안내

가. ㉡ 축제 날짜 및 장소를 밝힘.

나. ㉢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강조함.

2. 초대의 말

가. 축제에 초대하는 내용을 정중하게 표현함.

나. ㉣ 방문객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증정함을 알림.

III. 맺음말: 축제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내용을 강조함.

(나) 모시는 글

따사로운 햇볕이 반가운 듯 나무들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완연한 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더불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새 학기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공연과 전시,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가득한 축제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학교 축제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 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작은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 감사합니다.

6. (가)의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7. ㉡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비유법을 활용할 것
○ 청유형 문장을 통해 참여를 촉구할 것

- ① 이번 축제가 우리 사이의 오작교가 되길 바랍니다.
② 이번 축제에서 친구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③ 활짝 핀 봄꽃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한 축제를 함께 즐겨 봅시다.
④ 봄바람이 꽃망울을 열 듯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8.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 언해]

㉠나·랏·말·ㅅ·미·中·동·國·꺄·에·달·아·文·문·字·쥬·와·로·서·르
스·못·디·아·니·홀·씨·이·런·전·츠·로·어·린·百·씩·姓·성·이
㉡니·르·고·저·홀·배·이·셔·도·㉢ㅁ·츰·내·제·㉣ㅅ·들·시·러
펴·디·물·홀·노·미·하·니·라

- 『월인석보(月印釋譜)』 -

- ① ㉠: ‘\’(아래 아)’가 사용되었다.
- ② ㉡: 두음 법칙을 지켜서 표기하였다.
- ③ ㉢: 소리의 높낮이를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 ④ ㉣: 이어 적기로 표기하였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화(梨花)¹⁾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²⁾이 삼경(三更)³⁾인 제
일지⁴⁾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⁵⁾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 1) 이화: 배꽃.
- 2) 은한: 은하수.
- 3) 삼경: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 4) 일지: 하나의 나뭇가지.
- 5) 자규: 두견새.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4음보의 율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10.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장은 민 씨를 즐기듯 노력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켜기 대회¹⁾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²⁾
탕감³⁾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 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끼라. 백 리 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
받는 꼴이 되어 버렸다.

“글세,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 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다. 남들이 못 몬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내사 민사무소⁴⁾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매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 가이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 가이고 온 사람도 밧 없더마. 소리마 밧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패이맨구로 썩썩 달리는데 받히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썩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 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 썩. 누구맨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 썩노. 도지에서 쫓딱 망해 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얹전
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 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냐, 애비냐.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대를 가든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니까?”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 1) 켜기 대회: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뜻있는 사람
들이 함께 일어나 행동하는 모임.
- 2) 부채: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 3) 탕감: 빚이나 요금, 세금 따위의 물어야 할 것을 덜어 줌.
- 4) 민사무소: ‘면사무소’의 방언(경상).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대규모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ㄴ. 도지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이 있었다.
- ㄷ. 산업화로 인해 농촌의 상권이 급격히 발달하였다.
- ㄹ. 농촌 사회의 부채 문제 때문에 켜기 대회가 열렸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3. ㉠~㉣ 중 지칭하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담(白塔)이 현신함을 아뢰옵니다.”
 태복은 정 진사의 마두¹⁾다. 산모퉁이에 가려 백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재빨리 말을 채찍질했다. 수십 걸음도 못 가서 모퉁이를 막 벗어나자 눈앞이 어른어른하면서 갑자기 한 무더기의 검은 공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인생이란 본시 어디에도 의탁할 곳 없이 다만 하늘을 이고 땅을 밟은 채 떠도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이렇게 외쳤다.
 “홀륭한 울음터로다! 크게 한번 통곡할 만한 곳이로구나!”
 정 진사가 묻는다.
 “하늘과 땅 사이의 툇 트인 경계를 보고 별안간 통곡을 생각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지, 그렇고말고! 아니지, 아니고말고. 천고의 영웅은 울기를 잘했고, 천하의 미인은 눈물이 많았다네.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옷깃에 떨굴 정도였기에,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나 돌에서 나오는 듯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네. 사람들은 다만 칠정(七情) 가운데서 오직 슬플 때만 우는 줄로 알 뿐, 칠정 모두가 울음을 자아낸다는 것은 모르지. 기쁨[喜]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사랑함[愛]이 사무쳐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쳐도 울게 되는 것이야. 근심으로 답답한 걸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보다 더 효과가 빠른 게 없지. 울음이란 천지간에서 우레와도 같은 것일세.
 ㉠ 지극한 정(情)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저절로 이치에 딱 맞는다면 울음이나 웃음이나 무에 다르겠는가. ㉡ 사람의 감정이 이러한 극치를 겪지 못하다 보니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는 슬픔에다 울음을 짝지은 것일 뿐이야. 이 때문에 상을 당했을 때 ㉢ 처음엔 억지로 ‘아이고’ 따위의 소리를 울부짖지. 그러면서 ㉣ 참된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한 소리는 억눌러 버리니 그것이 저 천지 사이에 서리고 엉기어 짝 뭉쳐 있게 되는 것일세. 일찍이 가생(賈生)²⁾은 울 곳을 얻지 못하고, ㉤ 결국 참다못해 별안간 선실(宣室)³⁾을 향하여 한마디 길게 울부짖었다네. 그러니 이를 듣는 사람들이 어찌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 박지원,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

- 1) 마두(馬頭):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
- 2) 가생: 가의(賈誼). 한나라 문제에게 등용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다. 장사왕과 양왕의 대부로 있으면서 당시 정치적 폐단에 대한 상소문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 3) 선실: 임금이 제사 지내기 위해 목욕재계를 하는 곳.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행동에 대한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 ② 특정 행동과 관련한 내용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장소에서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5. ㉠~㉤ 중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16.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심을 풀기 위해 울수록 근심은 더 커진다.
- ② 인간의 칠정이 사무치면 울음과 연결될 수 있다.
- ③ 웃음과 울음은 원인이 되는 감정이 같을 수 없다.
- ④ 감정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은 울음을 참아낼 수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A]

내가 그의 이름을 ㉢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17.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추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18. 윗글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삶
- ②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는 삶
- ③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삶
- ④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

19. <보기>는 [A]를 재구성한 것이다. [A]의 ㉠~㉣과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대응시켰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보기>
내가 구슬을 꿰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다.		① ㉠ 꿰기 전
		② ㉡ 돌멩이
내가 구슬을 엮어 주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로 와서 보배가 되었다.		③ ㉢ 엮어 주었을 때
		④ ㉣ 보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이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푯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푯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30도 이상의 고온이 여러 날 ㉡지속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월별 평균 기온이 연간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반팔 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 있다. 만일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만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일 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많아진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도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의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하루의 최고와 최저 기온을 알아야 한다. 즉 자료의 범위를 정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푯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 하여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최제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 -

20.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전문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2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균이 집단 간의 비교에 가장 유용해서
- ② 평균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 ③ 평균이 전체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는 데 유용해서
- ④ 평균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2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② ㉡: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 ③ ㉢: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④ ㉣: 하나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색해야 한다. (㉠) 컴퓨터는 청구 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찾아 주지는 않는다. 청구 기호를 들고 책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청구 기호가 '410.912 ㅈ794ㅅ'인 책이 필요하다면 먼저 410번대의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야 한다. 옆면에 400~413.8이라고 적힌 책장을 발견했다면 410.912에 해당하는 책은 이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410.8	ㅈ391ㅅ-1=2
어	별치 기호
410.8	분류 기호
ㅈ391ㅅ	도서 기호
-1=2	부가 기호

▲ 도서 청구 기호의 구성

왜냐하면 분류 기호가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책을 꽂기 때문이다. 또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분류 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자. 410.9가 있다면 그 오른쪽에 410.911이 있고, 410.912는 더 오른쪽에 있다. 모든 숫자가 같다면 도서 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에서처럼 'ㄱ, ㄴ, ㄷ……' 또는 'ㅏ, ㅑ, ㅓ, ㅕ……' 순으로 비교하면 된다.

청구 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별치 기호'라고 한다.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에 가야 찾을 수 있다.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 기호를,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여러 권 보관한다면 '=' 기호를 써서 분류하기도 한다. '-1=2'라는 표시는 연속물의 제1권이며, 같은 책을 적어도 두 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 둘째 책이라는 뜻이다.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 위해 '2011' 같은 연도를 붙이기도 한다.

- 이재웅, 「도서 분류의 원리」 -

23.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래서 ② 그런데 ③ 이처럼 ④ 왜냐하면

24.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이 나온 연도를 청구 기호에 붙이기도 하는구나.
- ② 별치 기호가 있으면 별도의 장소에서 찾아야 하는구나.
- ③ 같은 책장의 아래층에 있는 책은 위층에 있는 책보다 분류 기호가 낮겠구나.
- ④ 도서 기호는 국어사전에서처럼 자음 또는 모음 순으로 비교하면 되는구나.

2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책을 아래 책장에 꽂으려고 할 때 적절한 위치는?

<보기>
 <청구 기호> 315.741 ㅂ123ㅌ

①

②

③

④

315.74
ㄴ121ㅅ

315.741
ㅂ203ㅈ

315.741
ㅅ321ㄱ

315.742
ㅅ154ㄴ